

'93 구강보건 주간 성황리에 개최

지난 6월 9일~15일 일주일간 서울지부를 비롯한 전국 각 지부에서 '93 구강보건 주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예년에 비해 다채롭게 구성된 이번 행사는 저마다 노력을 경주하여 치과의사들 만의 행사가 아닌 국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홍보되었다.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12일 63빌딩에서 종합학술대회 및 「치아의 날」 행사를 갖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3천여 회원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 지부 학술대회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글로리아룸과 갤럭시룸에서 있었던 특별연제에서는 각 4편씩의 강연이 있었는데 글로리아룸에서는 「최신 치과진료의 심미적 처치」를 주제로 한 서울치대 엄정문 교수의 「심미적 보존치료」와 연세치대 박영철 교수의 「심미치료를 동반한 교정」등 4편의 연제가 발표되었으며, 동시에 열린 갤럭시룸에서는 「최신 치과진료의 보존적 처치」를 타이틀로 하는 서울치대 김종관 교수의 「진행된 치주질환의 처치」와 이화여대 김명래교수의 「치아재식 및 이식에 의한 처치」등 4편의 연제 강연이 있었다. 한편 대회장(국제회의장)에서는 「의료보험청구시 주의사항 및 청구요령」 「컴퓨터를 이용한 치과의원 종합관리」 「개원이를 위한 악관절학」 등 32연제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이 펼쳐져 치과의사들의 높은 학구열과 최신 진료방법의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 밖에 학술대회와 함께 펼쳐진 기자재전시전에서는 430평이라는 넓은 공간의 50개 업체가 참석하여 최신 기자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총회장면

◀ 기자재 전시장

또한 이날 오후에 열린 「치아의 날」 행사는 구강보건 유공자 및 모범양호교사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지난 2일 선발된 건치가족, 건치 연예인, 건치 스포츠맨에 대한 시상식과 텔런트 오지명, 김수미(STV)의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뽀빠이 이상용의 사회로 치아의 날 캐릭터, 건치 연예인 초대식, 극단 「영」의 인형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덴탈코urses의 아름다운 합창공연이 있었다.

또 식후행사 역시 경품추첨 갈라티와 사진찍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부산지부는 지난 9일 황령산 양영장에서 구강보건상 시상식 등 행사를 갖고 6.9 축전행사를 펼쳤으며 광주지부는 지난 15일 광주시민회관에서 구강보건상

시상식 및 제6회 시민 위안회를 갖고 잔치 한마당을 펼쳤으며 12일 친선 체육대회도 개최하였다. 제주지부는 지난 9일 도내 국교 양호교사 및 보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강계몽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체육대회 건치아동선발등의 행사를 가졌다. 강원지부 역시 국교아동 구강검진, 불우노인 의치장착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밖에 각 지부에서도 지부의 형편이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홍보와 행사가 진행되었다.

금년 구강보건주간 행사는 예년의 치과의사들만의 잔치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의 홍보와 계몽적인 요소와 국민들이 참가하는 범국민적 행사로 발돋움 하였으며 이를 따른 노력들이 옛보인 행사였다고 평가된다.

군진지부 제 7 회
치과부장회의



군진지부에서는 지난 6월 18 일 국군 의무사령부 보건연구처 (치부담당 소령 조영규) 주관으로 의무사 회의실에서 육군본부 의무감실 치무병과장(대령 김판식) 국군 수도 병원 치과부장 (중령 장 훈), 의무사 예하 군 병원 치과부장 및 육·해·공군 치무담당 장교가 모여 군장병에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치무사항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치과외래 환자의

병원별, 임상各科별 진료실적 분석, 치무병과의 위상 정립 및 군병원 현대화 계획에 계획에 따른 치과병원급 부대 창설등 치무병과 현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육군회관에서 제 12 대 치무병과장 취임 기념 소연이 있었는데 초대 치무차감, 초대 치무병과장 및 예비역 군의관들과 치협 김동기 군무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7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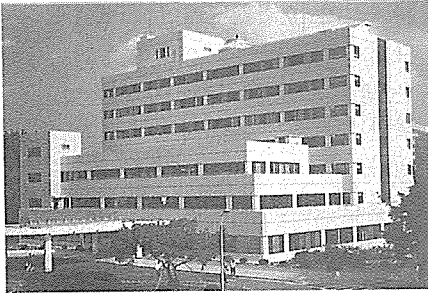
교육기관	일시	장소	연자	연제
강남·서초구회성동구분회	7.30 08:00-10:00 7.13 19:00-20:00	본회회관 동서윤호텔	박재익 백형선	Gnathosurgery 1. 토순 및 구개파열 환자의 교정치료 2. 개교교합 환자의 진단과 치료
종로구분회	7.15 08:00-10:00	초동교회	이승종	1. 근관치료시 발생하는 문제들과 그 해결방안 2. Vital & Nonvital Bleaching
경기지부	7.29 20:00-21:00	밀라노	고석훈	Bridge Design
제주지부	7.27 19:00-21:00	미정	민병일	구강외과 소수술에 대하여
경북대학교치과대학	7. (1시간)	경북대치대	권오원	Orthognatic Surgery Common Sense mechanics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7.9 18:30	서울대치대	미정	정례학술집담회
대한치과보철학회	7.22 19:00:21:00	경희대치대	최부병 양규소	TMD 환자의 임상적 처치 Custom Teeth Molding & Denture Stain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7.17~18 (10시간)	서울	조병욱외 9명	인정의 보수교육
대한치과기재학회	7. (1시간)	서울신협	김경남	교정치료

(8月)

교육기관	일시	장소	연자	연제
경기지부	8.27 19:00-20:00	안양코리아호텔	이종갑	Molar Composite
연세대학교치과대학	8.29 10:00-17:00	연세대치대	김경남	Composite Resin 연수회
조선대학교치과대학	8.21 (10시간)	조선대치대	강동완	도제 보철물 제작실습(이론 및 기공과정)
경북대학교치과대학	8. (1시간)	경북대치대	성재현	III급 부정교합의 치료후 장기관찰
	8. (1시간)	"	"	III급 부정교합의 악정형적 치료
	8. (1시간)	"	"	교정치료의 한계성
단국대학교치과대학	8.8 14:00-18:00	단국대치대	이재현 조인호 김경욱 정진형 임창준 허성주	Implant의 역사 및 서론
	8.14 14:00-18:00	단국대치대	"	무치악 환자를 위한 Implant 시술
	8.21 14:00-18:00	"	"	부분무치악 환자를 위한 Implant 시술
	8.29 14:00-18:00	"	"	Single tooth restoration & Craniofacial Implant
대한구강해부학회	8.25 18:30-20:30	서울대치대	이승종	Canal anatomy

〈 7, 8 月 보수교육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병원 국내 최대규모 치과병원



지난 89년 12월에 착공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월 18일 준공식을 갖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이번에 완공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대지 3천 3백 55평에 건축면적 6백 64평, 연면적 5천 5백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8층 옥탑 2층으로 유니트 2백 64대의 최신시설을 갖춘 국내최대규모의 치과병원으로 하루 1천여명의 외래환자와 38병상의 입원환자의 진료능력을 갖춘 치의학 분야의 명실상부한 국가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게 된다.

대한치과상공협회 신임집행부 구성 완료

대한치과상공협회(회장 吳東鉉)는 신임집행부의 구성을 완료했다. 최초의 경선으로 선출된 신임 오동현회장은 「연령을 초월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의 공약에도 시사하듯이 이번에 구성된 신임집행부는 새롭고 능동적인 인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수년전부터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오던 서울치대 약리학교실의 丁東均교수가 지난 11일 오후 12시 30분경 고려대 병원 에서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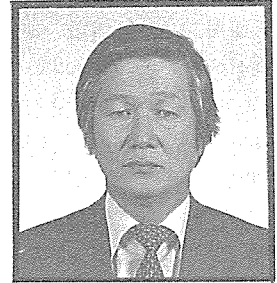
영결식은 지난 13일 오전 8시 서울치대 운동장에서 유족 및 서울치대교수, 동문회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치대葬으로 거행되었는데 李種昕(서울치대학장), 李在賢(단국치대학장), 박노회(UCLA교수) 등은 조사를 통해 「교수님의 치대 기초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학문에 대한 사랑은 기초학 분야를 세계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는데 건인차 역할을 해왔다」며 애석함과 더불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고인의 유해는 영결식이 끝나고 천안공원묘지에 안장됐다.

故 丁東均교수는 치협학술부

故 丁東均교수 영결식

서울치대葬으로 거행



회장,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장, 대한구강생물학회회장, 서울치대 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89년에는 제 14차 아·태회의 조직위원장을 지냈다. 2권의 저서와 1백 14편의 연구논문, 13편의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 목련장과 치협학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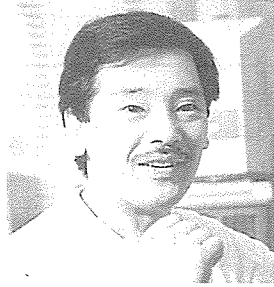
직	위	성	명	상	호	전 화 번 호		
회	장	오	동	현	에스에스화이트 코리아	756-4237~8		
부	회	장	송	규	천	미동양행	757-3661~2	
부	회	장	최	낙	동	상대종합상사(부산)	87-4454	
부	회	장	전	강	덕	대광치제상사(광주)	223-8474	
부	회	장	노	관	석	한독치과상사(대구)	422-5845	
총	무	이	사	이	태	훈	한진치제상사	778-5879
정	책	이	사	김	한	술	광명치과상사	777-4671~2
재	무	이	사	송	종	영	신흥역전치과상사	752-2872
자	재	이	사	이	용	익	신성치과기재	757-6155~6
공	보	이	사	이	주	우	우주통상	778-3458~9
법	제	이	사	안	치	관	화신덴탈	773-9191
국	제	이	사	이	평	일	비코인터내셔널	922-3635
북	지	이	사	여	규	삼	정우사	754-4231
섭	외	이	사	임	학	래	유신치과상사	752-1140
사	업	이	사	김	덕	환	이환실업	249-6718
감	사	최	낙	철	오	성	산업사	777-2373
감	사	김	명	규	신	용	무역상사	754-8608

**N. Nakabayashi교수
특강—치과 생체재료학
교실 초청**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생체재료학교실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분자 설계연구실 및 고분자학회)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동경 의대치과대학 의용기재연구소 N. Nakabayashi교수를 초대하여 6월30일(수) 오전 7시 30분 부터 신라호텔 라일락 홀에서 연제「Adhesion of polymer to dentin : mechanism, performance and perspective」 대한 특강모임을 갖는다.

문의처 : 서울대학교 생체재료학교실 743-0321

한국퀀테세스출판사 첫 출판기념 강연회



한국퀀테세스출판사는 오는 7월 18일 「메탈세라믹스 축성의 기초」 한국어판 출판기념으로 저자인 마코토 야마모토씨를 초청,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오팔효과와 명도조절에 의한 메탈세라믹스의 심미표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회는 특히 빈테이지 오팔포세라인과 벨류플러스 포세라인을 이용하여 밝은 명도와 오팔효과를 재현하기 위한 포세라인 수복방법이 소개된다.

강연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이며 각각 3시간의 슬라이드 강너와 데모를 실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퀀테세스출판사 주관 첫출판 기념강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문의처 : 한국퀀테세스출판사
536-2691

(주)신흥 '92상장기업 경영평가에서 60위 기록, 유상증자 실시

「국내 상장기업 92년 경영평가」에서 (주)신흥이 상장기업 550개사 중 60위를 차지해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한국경제신문 5월 27일자).

매년 한국능률협회 주관으로 국내 상장기업을 분석하여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성장성등 4개

부분의 경영실적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보고에서 신흥은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 67.8을 받아 60위를 차지했다.

작년 매출액 211억으로 성장률 29%를 보인 신흥은, 오는 7월 27일 20%의 유상증자를 실시함

에 따라 자본금이 40억원에서 4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증자방식은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며 주식 수는 총 16만주가 늘어난 96만주이다. 청약기관은 (주)동아증권이며 이번 주식의 발행가액은 30%시가 할인으로 발행된다.

한림치과산업 태국 첫 수출—오는 연말까지 50여대 수출기로

(주)한림치과산업(대표 안병일)이 국내시장에 유니트-퀘어를 생산판매한지 불과 5개월만에 태국의 수입판매 업체인 덴타사를 통해 그라시아를 처녀 수출하게 되었다.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린 태국 덴탈쇼에 처

음으로 참가한 한림치과산업은 이번 전시에 자체 브랜드인 그라시아를 전시하여 참가자들로 부터 지대한 관심을 끌었는데,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0여대씩 태국의 덴타사를 통해 50여대의 유니트-퀘어를 수출하기로 했다.

(주)한림치과산업은 이번 태국 수출로 동남아지역을 겨냥한 교두보로 삼고, 94년도에는 2백여대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